

화해의 사람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81 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2018년을 지내오며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이 기도편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2019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올 한해동안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신 교회와 개인 그리고 목사님들께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

보냄 받은자로서 이곳에 있지만 곳곳에서 기도로 후원으로 또한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심이 없다면 이곳에서의 생활과 사역이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며 늘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바데일 교회, 페이스 챔피언 교회, 부룬디 교회, 사이트 비 교회, 필리피 교회, 크로스 로드 교회... 6개 교회의 아이들과 한해 동안 동역해 주신 선생님들의 가정에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사진은 움푸레니 목회자 훈련원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선물을 위해 섬겨 주신 진해침례교회, 샬롯 열린 교회, 전국 여성교 연합회, 김재현 집사님, 서영애 권사님, 팽지호 집사님, 김가은선생님, 정선영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신영자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어린이 교회들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 그 해당 지역에는 좋은 소문들이 나고, 해당 교회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들에게 접근해 보지만 현실적 한계로 인해 사역을 깊이 있게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개발하고 교사 훈련과 세미나를 통해 이들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움푸레니 목회자 훈련원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까지도 소문이 나고 있고 성경에 관심있는 일반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자를 꿈꾸는 분들이 등록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 하고 있습니다. 온양 교회와 새 성동 교회를 통해 건물이 완성된 이후 사역이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 첫번째는 파송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편지의 짧은 지면을 통해 상세히 나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파송교회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했지만 이전 파송교회의 배려와 상황에 따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으로 지금껏 잘 지내고 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제 비 온 뒤 굳어진 땅처럼 용기를 내어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누고 동역해 주실 파송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만, 저희 에게도 이땅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가족과 사역을 위해 함께 해 주실 파송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비자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자 법이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터 시행되는 법규 안에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 신청한 영주권도 두번이나 거절되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2019년 연말 까지 비자 연장하는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역하는 나라를 다른 곳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 지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반 기도 제목

1. 파송교회 문제와 비자를 포함한 인도하심을 위해...
2. 2019년의 사역이 시작되기전 하나님께서 먼저 사역의 현장에 기름부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땅으로 준비시켜 주시길..
3.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윤성이에게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눈을 뜨고 소원을 품게 되기를 위해..
4.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수현이가 더욱 주님안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랑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위해..
5. 한해 사역을 마무리 하고 아울러 2019년을 맞을 준비를 잘 하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